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9일(수요일) 저녁 19시,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 학부모위원(5명) - 정인옥, 김지영, 김담주, 강선주, 홍이랑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이미령, 김지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2. 1학기 교육과정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2학기 교육행사 일정 검토
3. 2015학년도 예산서, 2014학년도 결산서 검토
4. 기타 안건

- 간사: 지금부터 제2기 1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메르스와 관련하여, 첫 모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사: 총10명의 위원 중 9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혹시 자진해서 위원장을 하시고 싶으신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 김지영위원 :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에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임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선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어떨까 합니다.
- 정인옥위원 : 내년엔 졸업이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 양순실원장 : 위원님들 모두 이에 동의하십니까?
<거수로 전원동의 >
- 양순실원장 : 모두 동의하시니, 별도의 투표 없이 1기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정인옥위원님을 2기 위원장님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옥위원 위원장으로 선출, 모두 박수 >
- 양순실원장 : 그럼, 부위원장은 신임위원님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거수로 전원동의 >
- 양순실원장 : 현재 자리하신 신임위원이신 김담주위원님과 홍이랑위원님, 부위원장 후보를 어떻게 할까요?
- 홍이랑위원 : 약수유치원을 첫째가 다녔고, 둘째도 보내시는 것이니, 김담주위원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김담주위원님 어떠십니까?
- 김담주위원 :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위원님들 김담주위원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거수로 전원동의>
- 양순실원장 : 이로써 정인옥위원장님, 김담주부위원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립니다.

< 이후 기존에 급식, 예/결산 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신입위원들이 부위원장, 교원위원들이 간사를 맡기로 조율. >

○ 간사 : 다음은 1학기 학부모의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안건이 있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담주위원: 연령별 교육안 인쇄가 어렵다면, 통신문에 해당연령의 주제관련 협조자료를 몇 줄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자료를 가져가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도움이 되는데, 부모가 확인이 늦어 제 때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 양순실원장: 통신문에는 꼭 챙겨야 할 공지사항들을 주로 넣는데, 홈페이지의 활용면에서도 직접 확인하시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 홍이랑위원 : 보통 금요일에 통신문이 오는데, 사실 주말에는 가족이 다 집에 있다 보니,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홈페이지 봐야지 하다가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통신문은 주중인 수요일에 배부하실 수는 없는지요?

○ 간사 : 평소에 교육안을 계획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작업하고, 제출해서 서로 논의, 조율하다 보면 금요일도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보다 더 앞당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 양순실원장 : 사실 인쇄배부를 하거나, 안하거나, 챙기시는 분들은 다 챙기십니다. 자녀에 관한 것이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인옥위원 : 통신문에 교육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더 홈페이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양순실원장 : 그러면 이번 주 연령별 교육안에 대한 주제와 진행기간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주제 관련 자료들(동화, 실물자료, 장난감 등)을 기재한 날짜(주제진행 초반)에 되도록 협조 받아서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하기 위함이며, 주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협조해 주셔도 됩니다. 통신문 기재로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신문부터 연령별 주제와 관련된 자료협조의 확인 용이성과 확대를 위해, 주제와 진행기간 기재해 나가기로 결정>

○ 간사 :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에서 더 나눌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인 2학기 교육행사 일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했었기에 알고 계실 텐데요, 2학기에는 겨울방학 일정이 기존 일정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결산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 행사일정에서는 12/19(토)에 발표회를 먼저 하고, 12/24(목)에 방학식, 1/21(목)에 개학식, 2/19(금) 종업식, 2/22(월) 5세 졸업식의 수정사항을 나누고, 다른 의견이 없어 마무리>

○ 양순실원장 : 2015학년도 예산명세서와 2014학년도 결산명세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담주위원 : 마이너스 운영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옥위원 : 방과 후 특활비는 어느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지요?

○ 양순실원장 : 그것은 여기 명세서 항목상 현장학습비와 교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만 지불되는 것은 현장학습비, 교재도 제공되는 것은 교재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모두 동의 >

○ 간사 : 이로써 2015학년도 예산서와 2014학년도 결산서에 대한 자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간사 : 이제 오늘 회의의 주요안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옥위원 : **혹시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순실원장 : 기본적으로 교사가 행복해야 유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어차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다소 반대 입장입니다.
- 김담주위원 : 교사에 대한 감시라기보다, 안전사고나 유아 간 다툼 발생 시,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요?
- 김지영위원 : 네, 실제로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을 담임을 감시하려는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양순실원장 : 글썄요...
- 정인옥위원 :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가 팔이 다쳤는데, 아이가 말을 잘 안하고 해서, 혹시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니,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냥 혼자 넘어져 팔 다치는 장면과 선생님께서 아이를 챙기는 모습을 확인하여, 신뢰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는 교사들의 억울함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양순실원장 :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 정인옥위원 : 재정적인 부분과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교사들의 손길이 다 닿기 어려운 복도나, 실외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 김지영위원 : 설치비는 학부모들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 양순실원장 : 사실 CCTV는 설치비가 아닌 유지, 관리비부분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유치원에서 교육하면서 별도의 인력 없이 일일이 CCTV파일을 보관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위탁을 대부분 하게 되는 데, 그러면 설치는 무료로 해 주고, 월관리비가 지출되는 것이지요. 학부모위원들의 의견과 생각 잘 들었습니다. 추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강선주위원 : **2학기라 졸업사진 촬영이 있는데, 기존에 찍은 사진들을 보니, 뽀샵이 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가급적 원래 얼굴이 보였으면 합니다.**
- <다른 학부모위원들 동의>
- 양순실원장 : 네. 촬영업체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홍이랑위원 : **발표회가 좋긴 한데, 장소상 조부모님들도 함께 하시기가 어려움이 아쉽습니다.**
- 양순실원장 : 대관을 하면, 어른들은 좋겠지만, 유아들은 낯선 곳에서 떨면서 의상갈아입고, 공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유아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자라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어른들이 유아들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공지해 드린 대로 부모님 2분만 오신다면, 덜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홍이랑위원 :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 대관까지는 아닌데, 아쉬움이 있어서요.
- 정인옥위원 : 저도 대관해서 하는 발표회도 경험했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 김지영위원 : 그런데 어기고, 조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온 경우도 있더라구요.
- 양순실원장 : 제가 그 부분이 유아들에게 민망한 부분입니다. 유아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어른들은 안 지키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진행될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홍이랑위원 : 그럼, 자리가 여유 있게 2반 정도 썩 나눠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 양순실원장 : 하루 3타임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연령별로 변화와 발달을 보는 것도 재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십니까?

<다른 학부모위원들도 3,4,5세 골고루 보고 싶어 하심. 어쩔 수 없이 3반, 4반 진행 불가피>

○ 홍이랑위원 : 조부모님들도 보시고 싶어하셔서 작년에는 우리 부부가 봤으니, 올해는 조부모님 보시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 양순실원장 :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 정인옥위원 : 그런데, 친정, 시댁 다 있잖아요...

○ 홍이랑위원 : 주변에 몇몇 분들은 그냥 일단 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 양순실원장 : 대부분이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데, 몇몇 분들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 지는 일들이 생기지요. **학부모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오전팀은 비교적 잘 지켜졌는데, 오후팀은 시작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현관에 딱 차 있었어요. 사이에 낀 아이들이 위험하다면 문열어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위험은 학부모님들께서 만드신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에, 유아들이 불편을, 위험함을 겪은 것이지요.

2~3시간 전부터 오셔서 자리맡아 놓으시고, 시간 맞춰 오신 분들도 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위해, 오픈시간을 정했던 것이었는데, 교사들 점심식사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유아들과 교사들이 편해야 원활한 발표회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도 점심식사 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불안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 학부모님들께 이 점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 간사 : 많은 의견을 나누는 사이 벌써 시간이 밤9시를 넘겼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 홍이랑위원 : 늦긴 했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민원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약속유치원과 선생님들을 믿고 응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다 만족하고 좋아하세요. 일부분의 의견으로 소신을 잃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곧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양순실원장 :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응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 그럼,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학부모카페를 통한 안전이나, 학부모위원님들께서 꼭 나뉘으면 하는 안전이 있으실 경우, 회의소집을 위원장님을 통해 요청해 주시고, 이후 정기회의 소집일은 추후 조율해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